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총리실 공보기획비서관실

과장 정일황, 사무관 유경호
(044-200-2698, 2699)

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배재정 前 국회의원

- 부산일보 기자(18년), 민주당 대변인·정책위 부의장 등 역임 -

-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배재정 前 국회의원이 6.11일자로 임명되었다.
- 신임 배 비서실장은 부산일보 기자로 18년간 재직하면서 인터넷 뉴스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고, 19대 국회의원, 민주당 대변인·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.
 - 특히, 19대 국회의원으로서,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,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.
- 문재인 정부의 여성인재 중용 기조 아래, 총리실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된 배 비서실장은,
 - 문 대통령과 이 총리 사이에서 가교 역할 및 국회와의 교감을 잘 해낼 것이란 기대가 높다는 분석이다.

※ (붙임)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적사항

<붙임>

□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적사항

성 명	출신지 / 학 력	주 요 경 력
 <p>배 재 정 (1968.2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산 · 부산대 대학원 예술·문화와 영상매체협동과정 수료 ·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· 테레사여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산대 전문경력교수 · 부산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· 부산 사상 가꿈연대 대표 · 국회 예결특위 위원, 교육문화위 위원 · 민주당 대변인, 정책위 부의장 · 19대 국회의원 (비례대표) ·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 간사 ·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·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 홍보실장 · 부산일보 기자, 인터넷뉴스부장